

“
일하고
싶습니다
”

김부겸 2



신매시장에서

세 번째 도전

4년 전,
수도권 4선을 포기하고
대구 수성구에 출마 40.4% 득표.
2년 전,
대구 시장 출마 40.3%, 수성(갑)에서 50.1% 득표.

두 번의 실패는 '대구 사람 김부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대구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대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대구 예산 따내려 손잡은 권영진·김부겸

대구시-새정치. 예산 정책협의회

"대한민국에서 당 다르고, 대구시장 선거 같이 할 땐(김부겸-권영진)끼리 마주 앉아 예산 협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 홍의락 의원(비례대표-대구 북)을 지역위원회장이 대구시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대구광역시 철도망 구축사업 예산의 예산 처리를 소속 당에" 읍소했다.

"당 다르고 시장 선거한 분끼리 예산 협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예결위 간사 안민석 의원 칭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사업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회(본지 지난 26일 자 1면)과 관련, 여당 소속인 권영진 시장이 지역 출신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발벗고 국회로 달려오자 야당도 박수를 보냈다. 권 시장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위원으로 안 의원을 만났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바 있다.

이날 대구시와 새정치연합이 연 '예

"물 클러스터 대구 광역 철도망 홍의락-김부겸이 도와준 예산" 최재현 정책위원장 긍정적 회답

임위원 통과해 국회 예결위 '본선'까지 진출해도 예결위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삭감되면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중요하다. 이들의 만남은 1시간 내내 부드러웠다. 회의 시작 전 김 전 의원은 예산 삭감의 합을 견안 의원을 향해 "안 간사가 안 도와줘서 시장님한테 찍히면 끝이다"고 고농담을 던졌다.

홍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선심성 예산'

철도망 구축 사업'도 읍 7월 관련 부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검증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일부 의원들이 소위 '박근혜 예산'으로 광역권 철도망 사업은 '최재현 예산'이라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살뜰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홍의락, 김부겸이 도와준 예산이라고 100분의 1만 정치적 성향을 나눠 주신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홍 의원은 "지금 대구시에는 일이 많고 아프다. 자신이 좋은 의원은 많이

되지 않고 아파는 게 많을 것 같다"

여당의 힘과 야당의 명분이 합쳐질 때 대구가 발전합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던 어느 날 권영진 시장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 예산을 새누리당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2,976억 원(총액의 9%)을 깎겠다고 하니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당장 국회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야당 예결위원들한테 읍소를 하든 약을 쓰든, 한 톨도 못 깎게 할 테니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의원, 그리고 저까지 달려갔습니다. 결국 대구 예산 요구액은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만 있는 것보다 야당도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당은 힘이 있습니다. 야당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회 통과는 훨씬 쉽습니다.

대구 발전, 이제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당이 파이다?

‘사람은 좋은데, 당이 파이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물건이 좋으면 한 번 써보셔야지, 공장이 싫다고 아예 안 쓰시렵니까?’하고 농치기도 해봤습니다.

이제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공장’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호남 정당, 운동권 정당이란 이미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당 대표에 출마하라는 요구도 받았습시다. 우선 대구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번번이 고사해 왔습시다.

이번에 대구에서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다음은 저희 당을 바꿀 차례입니다.

찬성할 것은 찬성하겠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반대하겠습니다.

당의 체질을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4년 뒤에는 ‘사람도 좋고, 당도 좋은’ 후보라는 소리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東亞日報

2016년 1월 5일 화요일

野 위기때면 ‘김부겸 구원등판론’ 왜?

여의도 인사이드

계파색 열고 중도개혁 노선
당내 보기드문 TK출신 강점
金 “지역에서 인정받게 우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부겸 구원등판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당(本黨) 위기에 몰린 당을 살리고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선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당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의원은 고사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 이후 당의 긴박한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도 전달됐다.

김부겸 등판론은 처음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대민주당)의 전신인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로 위기에 몰렸을 때 의원들은 김 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박영선 의원이 2개월여 만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을 때도 당은 그를 찾았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2015년 2·8 정당대회 직전에는 많은 의원들이 김 전 의원을 찾아가 당

대표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다. 현역도 아닌 원외(院外) 인사로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그가 위기 때마다 구원 투수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뿌리 깊은 계파 간 갈등으로 내홍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대민주당에서 김 전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도자급’ 인사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으로 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연이어 40%의 득표율을 올린 야당 인사다. 과거 지역주의 티파일을 위해 서울 종로 지역구를 뒤흔치고 부산에서 출마해 ‘바보 노무현’이라는 예칭을 얻었던 노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와 함께 ‘합리주의 중도개혁’ 노선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당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김 전 의원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온전히 대구 사람이란 인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 먼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균 기자 leon@donga.com

당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김 전 의원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온전히 대구 사람이란 인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 먼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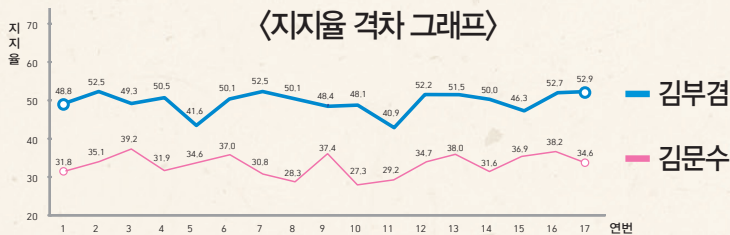
투표소에만 들어가면 1번으로 손이 간다?

‘아이고, 김 의원! 내가 꼭 찍으려고 했는데 막상 투표소에 들어가니
나도 모르게 1번 밑에 찍어버렸네. 미안하네...’

웃으면서 건네시는 말이지만, 듣는 저로선 주저앉아 울고 싶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허허 웃습니다.

30년을 조건없이 찍어 온 당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바꿔주십시오. 대구 전체에 12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어도 12분의 1입니다.

갈등만 반복되는 정치를 넘어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정치
‘대구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저 김부겸이 열어가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료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연번	보도일시	매체	김부겸(%)	김문수(%)	격차(%)
1	1.4	중앙일보	48.8	31.8	17.0
2	1.4	매일신문, TBC	52.5	35.1	17.4
3	1.4	대구일보	49.3	39.2	10.1
4	1.5	한국일보	50.5	31.9	18.6
5	1.17	뉴시스	41.6	34.6	7.0
6	1.25	매일신문	50.1	37.0	13.1
7	2.4	SBS	52.5	30.8	21.7
8	2.5	YTN	50.1	28.3	21.8
9	2.11	경북도민일보	48.4	37.4	11.0
10	2.16	KBS, 연합뉴스	48.1	27.3	20.8
11	2.19	매일경제신문	40.9	29.2	11.7
12	2.23	중앙일보	52.2	34.7	17.5
13	3.21	중앙일보	51.5	38.0	13.5
14	3.22	동아일보, 채널A	50.0	31.6	18.4
15	3.24	KBS, 연합뉴스	46.3	36.9	9.4
16	3.28	영남일보, 대구MBC	52.7	38.2	14.5
17	3.29	SBS	52.9	34.6	18.3



동성로에서

대구 사람

3선을 하는 동안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시나브로 잊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대구로 왔습니다. 두 번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4년 사이에 수성구 골목이 제 손금보듯 흰해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대화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구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의리를 중시하고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과

고향을 지키는 이들이 갖는 자부심으로 당당한 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소주라도 한 잔 기울일 때 그 분들이 쏟아놓는 걱정은 가슴 절절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아들딸이 살아 갈 대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부겸, 다시 대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돼도 대구 사람, 낙선해도 대구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자식 키우고, 함께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수성구
발전전략

대구의 중심 수성구를 미래형 도시로



대구경제
발전전략

남부권 신공항은 대구경제의 새 심장

내륙도시 대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로 열린 창 역할을 할 남부권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영호남 동서광역철도망'사업과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함께하는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수도권론자들이 무산시킨 신공항 건설.

저 김부겸이 여당의원들의 손목을 잡아 끌어 여야가 협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됩니다.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



교육

-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 청년근로자, 알바생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 + 부가금(100%)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고가의 사교육을 대체할 인터넷 명품강의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명품수성교육을 위한 진학·진로 전략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전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웃음을

문화



여성

- 「국립한국문화관」을 유치하고 ‘치맥 페스티벌’을 아시아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지역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견인하겠습니다.
- 전통시장에 문화예술을 입혀, 문화공연 관람과 장보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행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남녀 임금격차를 현행 36%에서 OECD 평균인 15%까지 줄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 지킴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르신



50대 아버지

- 70대 이상 고령층의 건강과 의료비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주치의’ 제도 운영과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를 대구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전국 최초로 어르신 전용 영상미디어센터 ‘청춘’을 설립하여 영상관련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 노후 설계, 건강 관리, 창업 교육, 재취업 교육, 여가 공간 등을 제공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는 더 내리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습니다.



대구중



경북고



수성발전
공동공약

김부겸의 약속은 무겁고 실천은 야무집니다

- 범어·만촌권 실버복지센터 건립, 수성시니어클럽 이전
- 도시가스 보급과 지원 확대, 공용주차장 추가 확보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
-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퇴근길 안전 위한 가로등개선(LED교체 2배 더 밝게)
- 마을마다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작은 도서관 설치, 황금권 공공도서관 건립
-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범안삼거리~황금동 도시계획도로 개통
- 도시철도 3호선을 대구스타디움~시지~혁신도시까지 연장





고산권

- 신매초교 수영장 및 주차장 설치/신매시장 활성화와 연계
- 고산3동 주민센터~매호천 도로 조기 착공, 혁신도시까지 연장
- 시지노인병원~효성백년가약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
- 경산방면 사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초등학교 유치

동별
숙원사업

범어권

- 수성구민운동장 개방시간 연장, 시설 개선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 상향 추진
- 신천 시장 및 인근상가의 시설 개선·활성화 지원

황금권

- ‘송전탑 지중화, 이미 군포에서 해낸 적이 있습니다’
- 어린이회관 본관 재건축과 진로·직업체험관 조성
- 노인종합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 황금1동 고가교 철거 검토

만촌권

- 수성도서관, 화랑공원 시설과 본동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
- 만촌역 수성대, 만촌2동 주민센터 방면 출구 신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 상향 추진
- 만촌2동 주민센터를 행정 복지 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





24
더불어민주당

아버지의 마음으로
김부겸

1958 경북 상주 출생
1968 대구초 58회 졸업
1971 대구중 26회 졸업
1975 경북고 56회 졸업
1987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2000~12 제16, 17, 18대 국회의원(전)
200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전)
2011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전)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전)
2012 제19대 총선 수성구(갑) 40.4% 득표
2014 대구시장 후보 수성구(갑) 50.1% 득표

대구의
아들딸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